



李光榮
(파학문화진흥회 부회장)

도구로서의 가치만을 주로 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도 옛 말이 되었다. 과학은 이제 경제는 물론 문화와 사회에서 정치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과학을 뺀 경제가 있을 수 없듯이 과학을 뺀 문화나 사회 그리고 정치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과학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와

때 거짓말을 못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정치에서 보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정부 정책에서도 보았다.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해 있다. 무엇이 정말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다. 거짓말은 나이, 교육, 교양과 관계없이 만연되고 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이고 114와 119에 거짓 신고를 장난삼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로 해서 오는 행정상 차질은 물론 막대한 재정손실을 낳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마디로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살면서 과학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해 온 결과이다. 후기 산업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비가 없었다. 정보화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룩된 사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학기술을 도구로서의 이용만을 강조해 왔다. 과학기술이 갖는 창조성과 합리성, 정밀성, 정직성 등 정신에 대해 등한했다. 아니 무시했다. 과학기술의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의식에 살아있지 못하다. 과학기술의 산물로 나타난 사회에 과학기술의 정신이 무시된 제도와 의식이 맞을 리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합리성과 정직성 등 과학기술이 갖는 정신을 우리의 경제와 사회 나아가 문화와 정치에 접목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계획은 물론 경제·사회·교육·문화·정치 발전계획에 과학기술정신이 깃들여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7

과학과 문화와 사회

요즘 과학과 문화 나아가서 과학과 사회와의 접목이 화두다. 과학이 문화의 일부이면서도 과학이 문화적 역할을 잃어버리고, 과학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해온 데다 과학을 단지 경제발전의 수단(tool)으로 여겨온 데 대한 반성이다.

우리는 과거 기술은 물론 과학발전의 당위성을 주로 경제개발에 두어 왔다. 그래서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은 경제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지금이라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에 의해 경제논리로 좌지우지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과학문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과학은 경제에 부속된

대체가 없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사회란 신용사회이다. 정직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는 사회이다.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사회를 이룩함에 있어서도 주로 고속통신망을 깔고 PC를 보급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놀랍게도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의 저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사람들의 인간교육엔 실패했다. 우리의 교육엔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말만 전인교육이었지 돈벌이를 위한 기능과 재능 교육이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한다.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양심에 가책마저 없다. 필요할